

38. 섬유제품 소비과정에서의 클레임사례와 시험방법(4)

- 역오염과 이염 -

□ 역오염

○ 소재

- 역오염은 세탁시에 세탁액 속에 존재하는 오염(염료 포함)을 섬유가 흡착하여 원래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되는 현상으로서 심하게 오염된 것과 함께 세탁하거나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낮은 경우 발생되기 쉬움.
- 역오염이 생기기 쉬운 소재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양모이지만, 특히 폴리에스터는 일단 오염을 흡착하면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쉬움.
- 이들 소재 이외에도 수지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은 수지에 오염이 흡착하기 때문에 역오염이 생기는 일이 많음.

○ 외관

- 색상은 원래의 색에 비하여 칙칙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부위는 세탁시에 생기는 것으로 전면에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소재라든가 부분적으로 수지가공 등이 되어 있는 제품에서는 그 부분만 생기는 것도 있음.





□ 이염

◦ 소재

- 이염은 염색건뢰도가 불량한 제품과의 접촉, 세탁 등에 의하여 생김. 사고는

① 건뢰도가 불량한 제품과 습윤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② 건뢰도가 불량인 상태이고, 사고품이 염료를 흡착하기 쉬운 제품인 경우, 예를 들면 건뢰도 불량에 의하여 음이온계의 염료가 세탁시에 용출된 상태에서 사고품에 고착제라든가 양이온계 유연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는 보다 현저하게 오염이 발생된다는 사례가 있음.



③ 폴리에스터 등의 염색에 사용되는 분산염료는 열처리에 의하여 서모 마이그레이션(thermo migration)을 만들어 습윤, 승화건뢰도가 저하되는 일이 있음.

- 사고는 기본적으로 건뢰도 불량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모든 소재에 일어날 수 있음.

◦ 외관

- 색상은 건뢰도가 불량한 제품의 색과 같든가 또는 배합되어 있는 색임.
- 부위는 습윤상태에서 접촉이라든가 분산염료의 승화에 의한 것은 접촉부분에만 오염이 생기고, 세탁시인 경우에는 전면에 생기는 경향이 있음. 또, 이들의 사고는 무엇인가의 작용에 의하여 습윤이라든가 승화가 일어나 이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발생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시험

- 사고의 발생상황에 따라서 물이나 세탁, 승화, 물·용제의 적하에 대한 염색건뢰도시험을 함. 이때, 첨부포는 가능하다면 사고품의 정상부를 오염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세탁 등으로 발생한 경우 특정한 제품에만 이염이 발생되었다면, 그 제품에 대하여 계면활성제 검출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음.